



장수 창의미래공간 ‘달빛’ 연계 프로그램 진행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11일, 장수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장수 창의예술미래공간 ‘달빛’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주도적 체험·창작 기회 확대의 문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수 관내 24개 학교(급) 59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재계재쟁 △푸드아트테라피 △우드버닝 △웹툰 제작 등 다양한 실습형 창의·예술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특히, 운영 방식은 학교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해 ‘찾아가는 달빛’과 ‘찾아오는 달빛’으로 구분된다. ‘찾아가는 달빛’은 강사가 필요한 재료를 갖추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고, ‘찾아오는 달빛’은 학생들이 달빛을 방문해 전문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몰입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민주평통 장수, 청소년 평화통일 강연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회장 우연태)는 지난 10일, 백화고등 학교(교장: 김수열)에서 학생, 교사, 자문위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강연은 탈북 강사이자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 중인 김유나 강사가 초청돼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연태 협의회장은 이번 강연회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큰 꿈을 함께 고민하고 그 미래를 상상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우리 고장 장수군의 정서와 역사 속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며 백화교 학생들이 평화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민주평통 순창군협의회, 청소년 대상 통일 강연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서애숙)는 지난 10일 순창북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평화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순창북중학교 강두희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전교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연은 통일교육 전문 강사 황연이 강사가 맡아 ‘어서와 북한 친구는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남북한 청소년 간의 문화 차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특히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사례와 설명, 통일 퀴즈 이벤트는 학생들의 큰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 김산동 주민자치취, 방문 이마용 서비스 제공

김제시 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철)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마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마용 봉사 경험이 풍부하며 작년까지 김산동 통장이었던 윤에순씨, 이부례씨 등으로 이루어진 봉사단과 협동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김산 주공 1단지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 30여명에게 머리 커트, 염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달동무가 되어드리고 다과를 제공했다.

박현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마용 서비스를 받기 위해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전해드리게 되어 뿌듯했고, 이마용 봉사에 앞장서주신 통장 외 봉사단원과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자봉센터, 국경 초월한 인류애 실천 ‘한 뜻’

해외의료봉사단 출범식 개최... 도내 보건의료인 48명 참여·성공적 의료봉사 다짐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지난 10일 도센터 교육장에서 의료봉사단원 4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출범식을 갖고 성공적인 의료봉사를 함께 다짐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의료봉사단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시민들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2019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4대 의약단체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몽골에서 의료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단체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의료기사연합회의 치과치공사회, 치과위생사회, 물리치료사회, 작업치료사회, 방사선사회, 간호조무사회 등 전북도 대표하는 보건의료인이 참여하였다.

이번 출범식은 현지 활동에 앞서 현지 의료수요에 부응하도록 의료체계와 시설현황을 공유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몽골을 이해하던원 상호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

이어 의료봉사단을 대표하는 단장에는 박용현 전주시 의사회장과 부단장에는 조환희 전주시 치과의사회장을 위촉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정신을 되새기며 세계 시민의식에 기초한 의료봉사로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 실천에 단원들도 함께 뜻을 모았다

전북센터는 출범식에 앞서 지난 4월 달란자드가드 시



와 해외의료봉사 업무협약 맺고 의료봉사 활동에 필요한 입국허가, 진료허가, 통관 등 필수 행정지원과 의료봉사단 현지 체류기간 동안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몽골 의료봉사는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우문고비 주 달란자드가드 시 지역종합병원과 마날고비병원에서 현지 주민과 진료, 처방, 조제, 보건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며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0개 진료과목과 틀니, 구강 보건프로그램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 박용현 단장은 “전북도 보건의료인들이 한 뜻으로 모여 의료 사각지대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주민들에게 우리의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 실천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정읍愛 주소갯기’ 캠페인... 문화행정국, 전입 독려 ‘앞장’

인구 10만 명 유지와 생활인구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읍시 문화행정국이 ‘정읍愛(애) 주소갯기’ 캠페인을 이끌며 전입 독려에 나섰다.

‘정읍愛 주소갯기’는 정읍시의 인구정책 핵심 전략인 ‘인구사랑 범시민 운동’의 핵심 전략이다. 전입지원금,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대학 신입생 장학금, 청년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장수 어르신 축하물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혜택을 집중 홍보해, 정읍에 살거주하면서도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 있는 시민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부서 1기관 전담제’를 도입하고, 문화행정국이 앞장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본격 기동 중이다. 인제양성과는 지난 6월 25일 정읍교육지원청을, 동학유산과는 7월 9일 정읍우체국을, 문화예술과는 10일 정읍교도소를 각각 방문해 캠페인을 알렸다. 이어 세정과는 7월 18일 정읍세무서, 회계과는 23일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찾을 예정이다.



기관별 방문에서는 실거주 미전입 직원과 신규 발령 직원들의 전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안내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수희 정읍교도소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은 “정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캠페인고령화, 인구 유출 등 복합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지역소멸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RICE 참여기업 10곳, 전북대에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 산학공동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기업 10곳이 8,6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을 통해 설립된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는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지능화 기술 혁신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혁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2031년까지 8년 동안 총 179억 원(국비 149억원, 지방비·대학 3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가 참여한다.

센터는 참여 기업에 맞춤형 기술자문, 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재직자 교육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기술 고도화 및 신제품 출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한 기업은 ㈜쥔쥔, 록스테크놀러지, ㈜유저인사이트, ㈜에코팜, 디와이이노베이션즈, 비스타로보틱스, ㈜비트엠, 서우엘에스㈜, ㈜리포스텍, 제너럴마이크로에이브(주) 등 총 10개사다.

기부 참여 기업들은 “산학공동과제에 통해 기술자문, 신기술 확보, 재직자 교육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일부 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술을 고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전기금이 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용재 센터장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지역과 대학,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연구환경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JBNU-G 아이디어톤·스피치대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 JBNU-G Start-up 아이디어톤 및 스피치대회’를 개최, 총 3개 팀을 우수 아이디어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회 최우수상은 ‘AI 다이나믹 UPS 솔루션’을 선보인 ‘Motrol’ 팀이 수상했다. 이 아이디어는 데이터센터의 화재 방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았다. 이진명(응용기술경영학과), 강아름, 이정환, 석수지(기계항공전자융합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협업해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우수상은 반도체·화학공학부 정승우, 임지우, 박윤희, 정보민, 이예진 학생으로 구성된 ‘이브이’ 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추사 약취 저감을 위한 기능성 사료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해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장려상에는 의과학과 김소연, 박은진, 김명균 학생과 행정학과 차지현 학생이 참여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반의 난치성 질환자 관리 솔루션을 선보인 ‘CuttiMang’ 팀이 선정됐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위, 업무보고 청취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지난 10일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시민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부서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보고에는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미지리경제과 △미래산업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7개 부서가 참여해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사항,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위원들은 화력발전소 관련 현재까지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부서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요구와 함께 주민 수용성 절차 하자에 따른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이상길 위원장은 “임시 TF팀 구성을 통한 부서별 진행 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도출하여 주민들과 공유하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왕정동, 폭염대비 1일 1가구 현장행정 진행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왕정동장 이영규)는 지난 10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는 찾아가는 1일 1가구 현장행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독거노인 가구, 중장년 독거가구, 장애인 가구 등 폭염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없는 밀착 복지를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이영규 동장은 가정을 방문해 냉방환경 점검과 주기적인 수분 섭취 여부 확인, 폭염대응 생활요령 안내 등을 진행하는 등 세심한 대응을 이어갔다.

특히 냉방기기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시 무더위 쉼터 이용 방법과 위치를 안내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 현장형 행정을 펼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초등생 대상 긴급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최근 부산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내 노후 아파트 인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8일부터 18일까지 교통초를 비롯한 총 7개 초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남원소방서 교육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진행되며, 저학년생 중심 화재 시 대피요령, 119 신고 방법 등 실생활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김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용지면, 폭염 대비 7월 이장회의 개최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2층 회의실에서 이장단, 기관·단체장, 용지면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9일 자로 새로 전입한 7명의 직원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입 직원들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에 대한 포부를 밝혔고, 이장들은 환영과 협력의지를 전했다. 또한 이날은 전출 직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인사도 함께 전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마을 이장들에게 폭염 대응 수칙을 공유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